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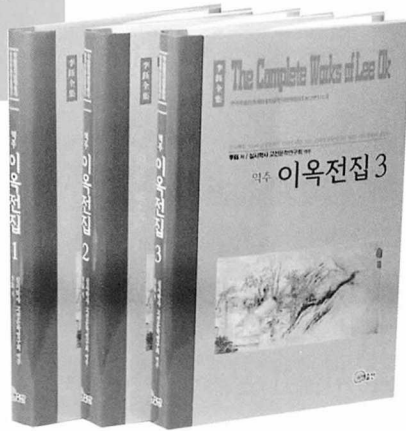
# 근대 산문문학의 길 개척한 한 불우한 지식인의 문학적 전모

《역주 이옥전집(전3권)》

《조희룡 전집(전6권)》(한길사)을 펴낸 바 있는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명저번역총서> 가운데 동양편으로 《역주 이옥전집(전3권)》을 출간했다. 이번 전집에서는 이 옥의 부(賦)·서(書)·서(序)·기(記)·논(論)·설(說)·해(解)·변(辨)·책(策)·문여(文餘)·전(傳)·이언(俚諺)·희곡(戲曲) 등 이 옥의 문학세계 전모를 망라했다.

해제에 따르면, 이 옥(1760~1813)은 성균관 유생으로서 과거문에서 소품체를 구사해 정조에게 ‘불경스럽고’ ‘괴이한 문제’를 고치라는 명령을 받고 급기야 유배형을 받았던 문체적 인물이다. 그는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과거시험에 발을 끊고 남양에 칩거하면서 오로지 문학창작에 매달리며 불우한 일생을 마쳤다.

이 옥의 문학세계는 추상적 이념의 세계에 경도되기보다는 포도·벼룩·거미 등 생활세계의 자살한 소재를 문학의 대상으로 끌어올렸고, 여속·방언·무속신앙과 설화, 세정세대, 지방물산 등을 기록해 근대적 산문문학의 길을 외롭게 개척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전통사회가 동요하던 때 그는 한마디로 전통적이고 고루한 문장을 거부하고 시속의 변화와 개인의 서정을 에세이풍으로 표현한 소품문체를 적



이 옥 지음 |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소명출판/A5신/352면 내외/20,000원 내외

극적으로 자기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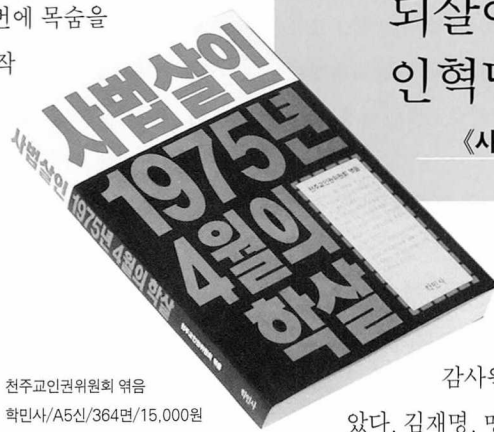
이 옥의 소품은 호방한 상상력과 섬세한 관찰력, 촌철살인의 기지 등이 어우러진 산문의 한 경지를 보여준다. 귀양길의 소감을 기록한 <남쪽 귀향길에서>의 한편인 <돌에 대한 단상>에서 돌을 묘사하는 대목은 이 옥의 발랄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압권이다.

“쌓여 있는 것은 책 만 축이 될 만하고, 아주 작은 것은 까마귀 떼가 고기에 모여든 듯하고, 뒤섞인 것은 바둑판을 밀쳐놓은 듯하고, 늘어서 있는 것은 도기(陶器)들이 스스로를 뿔내며 팔리기를 구하는 듯하다. 햇볕에 쪼인 것은 희고, 무늬가 벗겨진 것은 검고, 사람의 발에 갈린 것은 분홍빛을 띠는 푸른색이다.”

이 옥의 자유분방한 풍모는 미시세계에 대한 관찰력과 해학과 기지에 찬 묘사에서 유감없이 드러난다. <파리채에 새긴 글>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는 소꼬리로 파리채를 만들어 “나는 놈, 기어다니는 놈, 무리져 모인 놈, 매달려 쉬는 놈, 벽을 안고 있는 놈” 등을 침묵시킨 체험을 자랑스레 늘어놓으면서 급기야 파리채를 기리는 시까지 한편 완성한다.

“강건함을 드리워 / 천한 것을 떨쳐버림이요, / 검소하게 함이요, / 인(仁)에 마땅함이다.” —박천홍기자

1975년 4월 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고 난 후 불과 하루도 지나기 전에 수감자 8명이 서울구치소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이 바로 당시 정권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그 당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군사정권은 전대미문의 ‘사법살인’ 사건을 함구에 부쳤다. 그 후 인혁당 사건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급기로 여겨졌고,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영혼들은 물론, 가족들조차 억울한 사연을 말하지 못한 채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학민사/A5신/364면/15,000원

이 책은 1975년 당시 민청학련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사형당한 8명의 억울한 죽음과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 보고서다. 책은 당시 민청학련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종 자료와 9명의 생생한 증언을 되살려냈다. 이를 위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998년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복권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이 책은 바로 3년여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이자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진혼

## 되살아나는 역사의 그림자, 인혁당 사건의 실상 파헤쳐

《사법살인—1975년 4월의 학살》

곡이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유신 독재와 민청학련 사건’이란 주제로 한승원 전 감사원장, 시인 김지하, 이철 전 국회의원의 글을 모았다. 김재명, 맹찬형 등의 저널리스트들과 법학자의 글을 중심으로 엮은 2부는 ‘인민혁명당 사건의 진상’을 심층 분석한 자료들을 모았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인혁당 사건을 다룬 KBS <다큐멘터리 극장>에 방영됐던 면담자들의 증언을 소개한다.

이 책은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세우가는 길목으로 가는 이정표다. 특히 인권탄압의 극심한 실상을 폭로하면서 암울했던 역사의 그림자, 또 아직도 굴곡진 현대사 속에 가려진 미규명 사건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박숙순기자